

보건계열 학생과 비보건계열 학생의 교육만족도 조사

– D대학을 중심으로 –

박 명 호, 이 희 경, 김 상 연*, 권 순 일**, 전 성 희***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A Study of Educational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in Health Section and None Health Section based on 'D' college

Myung-Ho Park, Hee-Kyung Lee, Sang-Yeoun Kim*, Sun-Il Kwon**, Sung-Hee Jun***

Dept. of Dental Technology, Dept. of Ophthalmic optics*, Dep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Dep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Daegu, Korea 706-722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satisfaction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ffective school management of Dept. of Health section.

Methods: This survey, modified questionnaires based on Hee-Joo Moon's(2005), is accordance with undergraduate students and shows very high credibility upper than Cronbach's Alpha. 1,500 questionnaires are distributed(01. Oct. 2010~30. Oct. 2010) but only 1,213(80.8%) are returned and, except for 14 insincerely answered, 1,199(79.9%) are us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ing.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 of this survey is that 445(18.1%) are male, 739(61.9%) are female, 595(49.6%) are in health section, and 604(50.4%) are in none health section. 628(53%) chose getting jobs as their motivations for school choice and 727(60.8%) chose getting jobs and career guidance as theirs. The satisfaction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iculum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in none health se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in health section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iculum satisfaction. This survey indicates that once th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courses and career guidance increase, the overall satisfaction grows.

Conclusion: The keys to improve the curriculum satisfaction including students' in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re to provide and develop differentiated curriculums and support programs that meet students' expectations. In addition, the customized curriculums based on the level and aptitudes of female students are needed.

○Key words : college-students, educational-satisfaction, survey, health section

* 본 논문은 2010년 대구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성명	이 희 경	전화	053-320-1868	E-mail	hklee@dhc.ac.kr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번지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접수일	2011. 8. 16		수정일	2011. 12. 12		확정일	2011. 12. 28

I. 서 론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발전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하겠다. 전문대학이 국가의 발전 원동력 역할을 담당하려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 모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현장적합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적용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교육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전문대학은 날로 치열해지는 대학 간 경쟁 속에서 대학의 위상확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학의 홍보와 안정적인 취업률 확보 등도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함봉수, 2008; 김정길, 2009).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실 대학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여건 등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자의적인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작업의 단계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인구학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점(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8년에는 65세 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과, 학령인구(6세~21세)의 감소 등이 있다.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990만 명에서 2015년 873만 명, 2020년 743만 명, 2030년 616만 명, 2040년 558만 명, 2050년 460만 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된다(정호성, 2010; 김효진, 2009).

전문대학의 현안문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맞물려 2000년대에 들어와서 80% 이상의 고교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문제가 대두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학적 문제 외에도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전문학원 등과 함께 입학자원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 교육열과 관련하여 2, 3년제인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 그리고 취업에 유리한 직업교육 성격의 학과, 특히 보건계열 학과를 4년제 대학에서 기준 없이 개설하고 있으며(곽병선, 2007),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합병 등 대학구조조정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가 급

격하다(윤찬근, 2010).

현재 전문대학이 당면하는 미래는 유형의 자산보다 지식과 정보의 무형자산을 어떻게 확충시키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경쟁력의 잣대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고객화(educational consumerized)가 대학교육이 이루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보여진다(문희주 등, 2005; 이영학, 2007; 이경철, 2004). 교육환경 및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현장적합성 있는 우수한 직업 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고객이 만족하는 교육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임해규, 2010; 오교성, 2010). 윤여송(2005)은 전문대학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기관 모델을 도입해야 하며, 성장 동력 산업 관련 학과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 때문에 보건계열학과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 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혼성모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윤여송,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교육만족도에서 교육고객화를 위한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3년제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를 조사하고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전문대학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대상자가 일 개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고 1학년이나 2학년 재학생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만족도 비교 분석이 한계가 있어 조사결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적 평가도구만을 활용함으로써 정성적 측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질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만족도 평가를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D대학 재학생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교육만족

도 조사를 위해 2010년 10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문희주 등(2005)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도구의 내용은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신뢰

도는 Table 1과 같이 Cronbach's Alpha 계수가 0.9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각 학과별로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1,500부 설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1,213부(80.8%)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통계에 활용하기 어려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1,199부(79.9%)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of questionnaires

classification	cronbach's α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a curriculum	0.923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support programs	0.935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facilities in college	0.931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majors and the career guidance	0.926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lives in college	0.909
the relationship with college after graduation	0.916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7.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D대학의 23개 학과로서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과, 보건환경과, 보건행정과, 언어재활과, 뷰티코디네이션과, 보건의료전산과, 생활체육과, 건강다이어트과, 호텔외식조리학부, 간호계-간호과, 공업계-소방안전관리과, 사회실무계-유아교육과, 금융회계과, 사회복지과, 유통경영과, 예체능계-의료환경디자인계열이었다. 본 설문조사에서 3년제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학과와 2년제를 중심으로 한 비보건계열 학과를 대조군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활용된 통계분석기법은 설문도구의 신뢰도 분석, 설문대상자의 빈도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 성별, 계열에 따른 교차분석, 분산분석, 학생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자 38.1%, 여자 61.9%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만 20세 이하 40.0%, 만 21세 22.8%, 만22세 이상 37.2%로 만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학과편성은 2년제 비보건계열 49.6%, 3년제 보건계열 50.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1.1%, 2학년 39.0%, 3학년 49.9%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학과 선택동기로 '취업 및 진로를 고려하여' 6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성을 고려하여' 22.3% 이었으며, 기타 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이유는 '취업'이 5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 인력 배출' 27.5% 이었으며, '전인교육' 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percentage(%)
sex	male	455	38.1
	female	739	61.9
age(years)	~20 years old	478	40.0
	21 years old	273	22.8
	22 years old ~	444	37.2
school section	none health section	595	49.6
	health section	604	50.4
grade	1st year	133	11.1
	2nd year	466	39.0
	3rd year	597	49.9
motivation for department choice	aptitude	266	22.3
	career	727	60.8
	arranged scores	130	10.9
	the other	72	6.0
	professional training	326	27.5
motivation for school choice	self-actualization	159	13.4
	alternative university	56	4.7
	for study	9	0.8
	for career	628	53.0
	holistic education	8	0.7

2. 성별에 따른 교육만족도 비교분석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학생의 교육과정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3.5로 여자의 3.3보다 높았고, 교육지원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등 모든 만족도에서 남자가 높았으며 그 중 교육과정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육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by sex

Unit: mean(sd)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t	p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a curriculum	3.53(0.71)	3.28(0.27)	3.4(0.6)	6.636	0.0001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support programs	3.39(0.76)	3.03(0.64)	3.2(0.7)	8.792	0.0001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facilities in college	3.18(0.88)	2.83(0.62)	3.0(0.7)	8.519	0.0001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majors and the career guidance	3.41(0.72)	3.14(0.66)	3.2(0.7)	6.619	0.0001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lives in college	3.50(0.68)	3.17(0.60)	3.3(0.7)	8.656	0.0001
the relationship with college after graduation	3.16(0.83)	2.92(0.70)	3.0(0.8)	5.192	0.0001

*Independent t-test

**Likert scale: maximum=5, minimum=1.

3. 계열에 따른 학과 선택동기

계열에 따라 학과 선택동기는 비보건계열의 학과 선택 동기 중 '취업 및 진로를 고려' 7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성을 고려' 16.0%, '성적을 고려' 9.0%, 기타 3.8%로 나타났으며, 보건계열의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

및 진로 고려' 50.9%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고려도 낮았으며, 기타 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계열에 상관없이 학과를 선택할 때 취업 및 진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Table 4. Motivation for department choice

Unit: N(%)

classification	motivation for department choice					χ^2	p
	aptitude	carrier	student score	the other	total		
none health section	100(16.0)	425(70.6)	54(9.0)	23(3.8)	602(100.0)	50.233	0.000
health section	166(28.0)	302(50.9)	76(12.8)	49(8.3)	593(100.0)		
total	266(22.3)	727(60.8)	130(10.9)	72(6.0)	1095(100.0)		

4. 계열에 따른 교육만족도 비교분석

계열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각 항목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계열에 따른 학생의 전공과목 교육만족도 차이는 비보건계열의 학생 전공과목 교육만족도가 $3.47 \pm .95$ 로 보건계열의 $3.35 \pm .9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보다 전공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에 따른 학생의 전공과목 교육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계열에 따른 학생의 교양과목 만족도는 비보건계열의 학생 교양과목 교육 만족도가 $3.27 \pm .92$ 로 보건계열의 $2.94 \pm .9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보다 교양과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 학생의 교양과목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계열에 따른 학생의 실습과목 만족도는 비보건계열의 학생 실습과목 교육 만족도는 $3.38 \pm .92$ 로 보건계열의 $3.20 \pm .9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 학생이 보건계열 학생보다 실습과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에 따라 학생의 실습과목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항목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계열에 따른 학생의 기자재 만족도는 비보건계열의 학생 기자재 만족도가 $3.33 \pm .97$ 로 보건계열의 3.09 ± 1.0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 학생이 보건계열 학생보다 기자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 학생

의 기자재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항목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계열에 따른 학생의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만족도는 비보건계열의 학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교육 만족도가 $3.44 \pm .98$ 로 보건계열의 2.88 ± 1.0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 학생이 보건계열 학생보다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 학생의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항목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계열에 따른 학생의 학과행사 만족도는 비보건계열의 학생 실습과목 교육 만족도는 $3.16 \pm .99$ 로 보건계열의 2.84 ± 1.0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보다 학과행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 학생의 학과행사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항목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계열에 따른 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비보건계열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3.38 ± 1.05 로 보건계열의 $3.31 \pm .96$ 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 전공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에 따라 학생의 전공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항목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계열에 따른 학생의 전공적성 만족도는 비보건계열의 학생 전공적성 만족도가 3.37 ± 1.02 로 보건계열의 $3.16 \pm .99$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보다 전공적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에

따라 학생의 전공 적성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계열에 따른 학생의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는 비보건계열 학생의 전반적 학교 만족도가 $3.38 \pm .93$ 으로 보건계열의 $3.19 \pm .9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보다 전반적 학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에 따라 학생의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항목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Table 5.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section

Unit: mean(sd)

classification	none health section	health section	t	p
th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3.47(0.95)	3.35(0.90)	2.177	0.030
the satisfaction with the liberal arts	3.27(0.92)	2.94(0.93)	6.121	0.000
the satisfaction with the practical courses	3.38(0.92)	3.20(0.91)	3.410	0.001
the satisfaction with the apparatus and materials for an experiment	3.33(0.97)	3.09(1.03)	4.256	0.000
the satisfaction with the certificate programs	3.44(0.98)	2.88(1.00)	9.712	0.000
the satisfaction with the college events	3.16(0.99)	2.84(1.04)	5.386	0.000
th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courses	3.38(1.05)	3.31(0.96)	1.353	0.176
th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competences	3.37(1.02)	3.16(0.99)	3.496	0.000
th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3.38(0.93)	3.19(0.93)	3.645	0.000

5.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지원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전공환경 만족도 세부적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학생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서는 교육과정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전공환경 만족도였으며,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전공환경 만족도로 전공 및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지원 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3.6%이었다(Table 6).

Table 6.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student satisfaction

classification	B	SD	β	p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a curriculum	0.159	0.32	0.154	0.0001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support programs	0.120	0.34	0.131	0.0001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facilities in college	0.152	0.28	0.165	0.0001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majors and the career guidance	0.365	0.27	0.388	0.0001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에 의함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0.536.

IV. 고 찰

본 조사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계수 0.9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1,119명의 설문

조사에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의 비율은 보건계열 학생이 49.6%, 비보건계열 학생이 50.4%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이 38.1%, 여학생이 61.9%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이들의 교육만족도는 남학생이

리커트 5점 척도에서 최고 3.53, 최저 3.16이었으나 여학생은 최고 3.28, 최저 2.8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희주 등(2005)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만족도는 낮아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여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학생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기개발 외에 학교당국에서의 여학생 취업과 자기 발전을 돕는 여학생 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 및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을 하는 경우가 보건계열 학생은 50.9%이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70.6%이었으며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각각 28.0%, 16.0%으로 순위는 동일하나 분포는 차이가 났다. 학생들은 취업 및 진로에 의해 학과를 선택했다는 결과와 같이 류지성(2007, 2010)의 연구에서도 최근 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취업이나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노재성(2009) 연구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학교에서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취업과 진로를 고려한 주문식 교육, 맞춤형 교육 등에 대한 연구도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박성중, 2006; 이윤철, 2007; 함봉수, 2008; 임해규, 2010; 윤여송, 2005). 전공교육 만족도나 교양과목 만족도, 실습과목 만족도, 기자재 만족도에서도 보건계열보다 비보건계열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계열의 국가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양 및 전공 커리큘럼 개발(부산정보대학, 2007) 등이 보건계열별로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격·면허증 취득 프로그램 만족도, 학교행사 만족도 등에서도 보건계열 학생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전공만족도는 계열 간 학생의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적성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보다 비보건계열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보건계열 학생의 입학 시 학교와 학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생들의 성향은 재학 중 과도한 학습량과 명예나 자아성취, 적성 등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며 전공 관련 직업 선택에서의 수입이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외

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류지성(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지원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전공환경 만족도 세부적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학생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교육과정 만족도, 복지환경 만족도, 전공환경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교육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전공환경 만족도로 전공 및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신인용(2006), 광병선(2007), 권두승(2006), 류지성(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지도 중 '취업 및 진로지도'로 전공특성화, Co-op 교육, 지역연고 산학인턴교육, 전문교육 강화방법 등에 의한 취업과 진로프로그램을 전문대학의 실정에 맞추어 적극 개발해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교육만족도에서 교육고객화를 위한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3년제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학과와 2년제 비보건계열학과를 설문조사하고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전문대학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D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문희주 등(2005)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 이상이었다. 1,500부 설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1,213부(80.8%)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1,199부(79.9%)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자가 455명(38.1%), 여자가 739명(61.9%)이었고, 비보건계열 595명

(49.6%), 보건계열 604명(50.4%)이었다. 학교 선택동기는 취업이 628명(53%)이었고,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 및 진로가 727명(60.8%)이었다.

2.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남학생과 여학생간 비교분석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교육만족도가 더 높았다($p < .005$). 여학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비보건계열과 치기공과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간 비교분석에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 학생보다 교육만족도가 더 높았다($p < .05$).

4.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공 및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기공과를 포함한 보건계열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전공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지원에 대하여 학생의 기대수준에 맞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전공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고, 전공 진로지도 및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곽병선 등. 2주기 전문대학 학과평가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7.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 전문대학지원과. 전문대학 발전방안, 2001.

권두승. 대학혁신체제(CIS) 구축을 위한 BSC 도입방안 연구. 명지전문대, 2006.

김재진.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목의 연계를 통한 전문대학 학생모집 및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극동대, 2006.

김정길. 2009학년도 전문대학 교육지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9.

김효진.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노재성. 전문대학 취업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9.

류지성. 전문대학의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7.

류지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문희주 등. 전문대학 교육전반에 관한 학생만족도 조사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박성중. 주문식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대학 직업기초능력 평가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부산정보대학. 2007년도 학사제도 개선 시범 전문대학 우수사례 발표 자료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7.

신인용. 대학교육서비스가 학교 성과와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오교성. 전문대학의 다문화교육 현황 및 제도 개선 연구. 2010년도 정책연구과제 발표 자료집, 2010.

윤여송 등.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윤찬근. 전문대학 교육의 경쟁력 향상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경철. 대학교육서비스품질이 학생만족, 대학이미지 및 긍정적 행동의지에 미치는 인과모형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22(4), 287-309, 2004.

이영학. 대학특성을 반영한 대학종합평가 준거모형구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이운철. 직업교육 선진화정책과 전문대학의 역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이의용. 잘 가르치는 교수. 샘 앤 파커스, 2010.

임해규. 전문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정호성.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함봉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전문대학의 위기. 삼성경제연구소, 1-144, 2008.